

상교우서는 “교우님들께 올리는 글”이란 뜻으로 수원교회사연구소의 주보 정하상 성인의 『상재상서(上宰相書, 재상에게 올리는 글)』를 사모하여 지어낸 소식지의 이름입니다.

수원교회사연구소 개소 20주년과 『상교우서』 100호를 맞이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수원교구 제3대 교구장 최덕기 바오로 주교님은 교구 설정 40주년(2003년)을 맞이하여 “수원교구와 한국교회의 역사를 연구하고, 신앙 선조들의 삶과 순교 영성을 발굴하여 이를 널리 알리고 후대에 전함으로써 한국 가톨릭 신앙과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수원교회사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2003년 1월 1일 구산성지 주임신부인 정종득 바오로 신부가 초대 연구소장으로 임명되었고, 9월 16일 화요일에 구산성지 안당묘역에서 연구소 개소 축하 미사를 드리고 곧이어 연구소 앞에서 개소식과 축성식을 올렸습니다.



2003년 9월 16일 수원교회사연구소 개소식 - 최덕기 주교 강론 및 기념 사진

이로부터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연구소장 정종득 신부와 연구원들은 수원교구를 포함한 한국천주교회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 자료를 정리, 번역, 주석하는 ‘역사총서’와 ‘교회사 자료집’, ‘번역총서’, ‘선교사제서한 대역총서’, ‘한국의 성인들’[시복재판록 정리-외부기관 협력사업]을 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교구 50주년을 맞아 ‘교구사’(3책)와 ‘교구사 자료집’(5책)을 편찬했으며, 교회사연구자들의 전공 학술 저서인 ‘학술총서’와 신앙선조들의 신심서적인 ‘고전신심서적총서’를 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소 소식지인 『상교우서』를 2003년 12월부터, 학술지[2012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로 선정인 『교회사학』]을 2004년 12월부터 편찬·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16일 연구소 개소 20주년을 맞이하는 현재에서도, 현 수원교구장 이용훈 마티아 주교님과 보좌주교 이성효 리노 주교님, 문희종 요한 세례자 주교님의 관심과 지원 아래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는 수원교구와 한국천주교회의 역사 연구와 자료 수집·정리, 편찬·간행 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연구소의 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연구소가 성장·

발전하여 개소 50주년, 100주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도움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연구소 소식지 『상교우서』의 100호 간행을 맞이하여 지난 20년 동안 『상교우서』와 함께 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년 전 “정성들여 연구한 교회사 지식을 오늘에 맞게 잘 정리하고 가다듬어 여러분께 널리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라며 『상교우서』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상교우서』는 계간지에서 월간지(2021년 2월, 69회)로 바뀌었고 판형과 편집체제도 계속 변화했지만, 처음의 약속과 다짐을 변함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연구소장 정종득 신부와 연구원 일동 올림

19세기 천주교회 목판인쇄소 운영과 서적 유통 (10)

- 「19세기 서울지역 천주교회 목판인쇄소 운영과 서적 유통」(2021년) 내용 소개와 보완 -

필자는 2021년에 집필한 「19세기 서울지역 천주교회 목판인쇄소 운영과 서적 유통」, 『조선 후기 서울 상업공간과 참여층』(공저, 서울역사편찬원, 2021년 3월)을 새롭게 수정·보완해서 『상교우서』 독자와 교회사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소개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호부터 위의 글 중 3~4절 부분과 새로 보완할 내용을 정리해서 연재했고, 이번 9월호를 끝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호에서는 위의 글 ‘4장 1880년대 근대 활판인쇄소의 서울 건립’의 내용 중 두 번째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세 번째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4. 1880년대 근대 활판인쇄소의 서울 건립

* 2021년 글(260~262쪽)에서 각주와 일부 인용문을 제외했고, 한자와 추가 내용을 덧붙였습니다.(밑줄로 표시)

4) 나가사키 ‘성서활판소’의 서울 이전과 간행 사업 - ‘가톨릭출판사’의 전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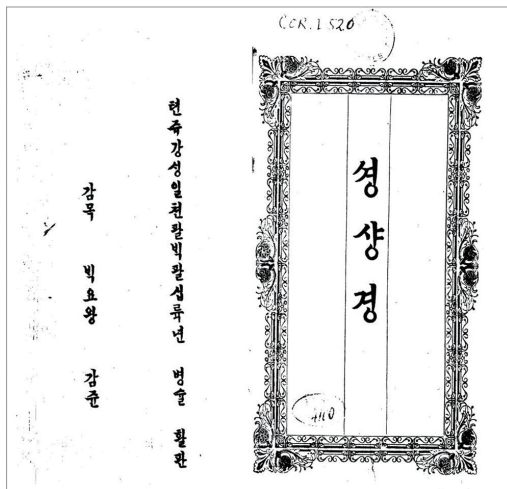
조불조약의 체결이 현실화되는 1885년경 블랑 주교는 대내외적 환경이 천주교회에 유리하게 변화 되었으며 더 이상 천주교 탄압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인쇄소와 신학교, 고아원, 양로원, 시약소를

국내에 설립하기로 했다. 이러한 대목구장의 방침에 따라 1885년 원주 부영골(현재 경기 여주시 강천면 부평리) 산골에 ‘예수성심신학교’가 건립되었으며, 서울 곤당골(현재 중구 의주로1가)에 고아원이, 동골(현재 종로구 관철동)에 양로원이 개설되었다. 1886년에는 양로원에 시약소를 병설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다. 일본 나가사키에 있던 인쇄소도 서울로 이전하게 되었다.

블랑 주교는 1879년 대목구장 집무대리로서 조선 국내에 인쇄소 건립을 구상하고 있을 때 최적의 장소로 서울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인쇄소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고 전국적인 유통을 생각할 때, 비록 운영면에서 지방보다 비용이 두 배 가까이 들긴 하지만 서울만이 ‘유일한 장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블랑 주교는 1884년 당시 일본에서 인쇄한 서적을 조선으로 유입하고 수송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고 있으므로 서울에서도 인쇄소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블랑 주교의 구상은 1885년 말에 현실화될 수 있었다.

1885년 10월에 블랑 주교는 코스트 신부에게 나가사키 조선대목구 대표부(경리부) 폐쇄와 인쇄소의 조선 이전을 지시했고, 1885년 11월 1일에 활자와 인쇄시설을 조선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11월 15일 제물포항을 통해 인쇄 기기와 물품이 통관되었고 11월 8일에 코스트 신부는 이미 서울에 도착하여 정동 푸아넬 신부의 거처(현재의 이화여고 맞은편에 위치)에 인쇄소를 설치했다.

정동 인쇄소에서는 1886년 8월부터 인쇄 작업에 들어가 『성교요리문답』과 『성상경』, 1887년에 『천주성교예규』와 『성모성월』, 『성요셉성월』, 『주교요지』를 간행했다. 당시 인쇄물 교정은 블랑 주교가 혼자 담당하고 있었다.



1885년 서울로 이전된 '성서활판소'에서 간행한 『성상경』(1886년)과 『성모성월』(1887년)

정동 인쇄소는 한글뿐 아니라 프랑스어 책자도 간행했다. 블랑 주교는 1884년 9월 초 서울에서 개최된 조선대목구 시노두스의 결정 사항을 정리하여 1887년 9월 21일자 사목서한 공표와 함께 프랑스로 된 『조선교회 관례집』(조선교회 지도서)을 간행했다.

1886년 6월 4일 조불조약이 조인됨으로써 선교사제들은 치외법권의 보호를 받게 되었으며, 선교사제의 조선 국내 여행과 선교 자유가 확보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블랑 주교는 서울에 대성당과 주교관을 건립하고자 했다. 그는 신자 명의로 1886년 6월 15일부터 1889년 6월 13일까지 중현(명동) 일대

의 대지와 가옥을 지속적으로 매입하였고, 1887년 12월부터 성당을 짓기 위한 정지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1890년에 서양식 주교관(2층)이 건립되고, 1892년에 대성당 기공식이 열렸다. 재정난과 청일전쟁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기는 했지만 1898년에 고딕식 대성당이 완공되어 5월 29일 축성식이 열렸다. 이 축성식에는 3,000여 명의 신자들을 비롯하여 대한제국의 많은 고관과 각국 외교관들이 참석하였다.

명동성당의 건축을 준비하면서 블랑 주교는 서울의 종현(명동)을 조선 천주교회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에 따라 신학교를 제외하고 서울 각지에 흩어져 있던 기관들이 종현으로 이전되었다. 고아원과 양로원을 운영하기 위해 블랑 주교의 초청으로 1888년 조선에 들어온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도 종현에 정착했다. 고아원은 1887년에 종현으로 이전되었고 수녀회에서 양육과 교육을 담당했다. 1883년부터 종현에 자리잡고 있던 종현학당은 초등교육기관으로 발전했으며, 1900년부터는 여학생들도 받아들여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에 교육을 위탁했다.

정동에 있었던 '성서활판소'는 1888년 명동에 세워진 서양식 건물로 이전했다. 이후 명동의 '성서활판소'는 대목구의 인쇄소로서 계속 발전해 나갔으며, 현재 '가톨릭출판사'의 전신이 되었다.

활판인쇄소에서 간행된 서적의 종류와 수량이 많아졌지만, 기존의 필사본이나 목판본이 바로 사라진 것은 아니다. 목판본은 더 이상 간행되지 않았지만 이미 보급된 서적들은 계속해서 신자들 사이에서 읽혀졌다. 간행본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지역이나 개인이 직접 필사해서 소장하려는 의도 등으로 말미암아 필사본은 계속해서 제작되고 유포되었다.

20세기 이후 조선인 신부를 포함한 사제의 숫자가 늘어나고 근대적 출판물이 확산되면서 필사본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고, 현대어법과 맞춤법에 기반한 현대적인 '번역'이 기존의 한글 번역을 대체하게 되었다. 그러한 변화 속에서도 목판본 천주교서적의 가치는 계속 유지되었다.

1860년대 간행된 목판본은 대목구장의 감준을 받은 정본(定本)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활판본으로 복간(復刊)할 때도 그 저본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신자들이 천주교서적을 필사할 때 목판본이나 목판본을 저본으로 한 활판본을 베껴썼다. 이후 대목구(뒤에 교구로 승격)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정본이 나오기까지 목판본의 교리서, 기도서 등은 신자들의 신앙생활과 사제들의 사목활동에 없어서는 안 되는 표준 서적으로 인정받았다.

이와 같이 목판인쇄소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폐지되고 활판인쇄소로 대체되었지만, 최초의 한국천주교 인쇄소로서 천주교서적의 간행과 보급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개항기 활판인쇄소를 거쳐 현대까지 이어지는 천주교 인쇄소의 역사적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석원 프란치스코(연구실장)

소식과 공지

☐ 『교회사학』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23호, 9월 30일 간행 예정

☐ 수원교회사연구소 편찬·간행 사업 소개

- 현재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는 『안성본당 자료집』(전 2책)과 함께 '선교사제서한 대역총서 2' 『모방 신부 서한』과 '수원교구 역사총서 - 순교자 증언록 III'을 편찬·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역총서와 역사총서는 원문을 새로 판독·편집하고 번역과 주석을 더하여 순차적으로 간행할 예정입니다.